

세계 최초 5G 설비 통신3사 '공동 구축'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 5G망 구축 위한 지자체 · 시설관리기관 자원 활용

통신사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 개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와 손잡고 5세대 이동통신(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통신사들의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 '신규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5G는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돼 전 범위적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다.

이번 정부는 5G망의 효율적인 조기 구축을 지원해 내년 3월 세계 최초 상용화 및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엔 5G 특성상 기존에 비해 더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 · 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이 포함됐다.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해관계자 회의를 30여 차례 이상 진행하면서 다음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중복투자 방지

과기정통부는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KT, LGU+, SKB)에서 이동통신사(SKTEL)까지로 추가했다. 아울러 대상설비에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를 포함했다. 이를 통해 5G망을 각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데 따른 중복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 건물을 형형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 건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 · 시설관리기관 자원 적극 활용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의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현재 지자체 및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 설비를 광케이블, 동선, 관로, 전주, 통신장비를 지지할 수 있는 거치대, 통신기

실 상면 등으로 한정돼 있다.

◇통신사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 개방

과기정통부는 우선 관로, 전주, 관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이동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구축한 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 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 뿐 아니라 SKB, LGU+, SKTEL까지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했다.

또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 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대가 산정하는 향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운영 사항 개선에 주안점... 상반기 내 고시 개정 완료 계획

과기정통부는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과기정통부는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사항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설비 제공 ·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과기정통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을 포함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상반기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설비 공동구축으로 연간 4000억 원 비용 절감 기대

이번 정책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연간 4000억원의 구축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5G망 구축 시 KT 등 타 통신사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최대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수호 기자



'을원뱅크' 200만명 돌파

NH농협은행, 간편 송금 · 알뜰 외화환전 '인기'

NH농협은행에서 출시한 모바일 플랫폼 '을원뱅크'의 가입자 수가 출시 20개월 만에 전복 7만명, 전국 200만 명을 돌파했다.

10일 NH농협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에 따르면 전북농협 가입자 중 실 사용자 비중이 80%에 달하는 등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기 비결은 '모바일 Only'를 목표로 간편 송금, 터치페이, 경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최대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있어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수호 기자

웬만한 금융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대표 서비스인 '간편 송금'과 '알뜰 외화환전'은 매일 이용권 수를 경신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농협은행은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4주간 을원뱅크에서 상품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최신 스마트폰, 시스피커, 울원 캐릭터인형 등의 상품을 준다.

또한, 간편송금 이용고객 중 선착순 5,000명에게는 3,000원 상당의 편의점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을원뱅크 가입자 200만 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수호 기자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

전북은행, 법인카드 이용 실적 따른 발전기금 3천 600만원 전달

JB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10일 정읍시청에서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정읍 시청과 업무제휴를 통해 2017년 JB카드 사용액에 따른 적립기금 3,6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정읍시장 권한대행 김용만 부시장과 이영태 전북은행 시외지역금융 센터장, 이경호 정읍시청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한 제휴카드 기금은 법인카드 이

용실적에 따른 이용액의 1%를 발전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다.

이영태 시외지역금융 센터장은 "전북은행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정읍 시민들을 위한 특화된 금융 상품 및 다양한 금융 정보 제공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 작은 대학 개소식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10일 진안우체국 2층 회의실에서 전북 지역 최초로 '우체국 작은 대학' 개소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는 이항로 진안군수, 이계원 진안 우체국장 및 주요기관·단체장, 수강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 일정은 KIDA한국드론교육원 고영호 교관의 '드론의 이해와 활용' 특강에 이어, 축하공연과 주요 인사 축사, 헌관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철 청장은 "'우체국 작은 대학'이 다양한 강좌를 운영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진안우체국을 시작으로 도내 6곳을 추가로 개설해 우체국이 지역사회의 문화와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정부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체국 작은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활용, 신명나는 전래놀이, 천연비누(화장품) 만들기 등 3개 과정이다.

교육은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주회 2시간씩 9주간 과정으로 진행되고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기타 프로그램 및 수강 관련 궁금한 사항은 진안우체국에 전화(063-430-5761)로 문의하면 된다. /최수호 기자

농어촌공 익산지사,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김선호)는 2018년도 올해 총사업비 153억3800만원을 투입해 익산지역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업별 지원현황은 고령·질병·은퇴·이농으로 인해 농지 관리가 힘든 농업인의 농지 등을 매입·임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112억900만원, 과수전입농지지원·육성을 위한 과원매입사업에 4억3500만원, 농업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에 36억94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경영양보보조금(10ha), 농지연금(신규가입 39명), 임대수탁(164ha) 사업 등으로도 지원할 계획에 있다고 농지은행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경우 익산지역 농지가격 변동을 현실화(당초 매입 가격 상한을 ㎡당 25,000원 → 변

경 ㎡당 3만원)했으며, 타작물 및 휴경 확대를 통한 쌀 재고 수급 조절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영양보보조금도 단가를 조정(당초 ㎡당 300원 → 변경(매도 ㎡당 330원, 임대 ㎡당 250원)하여 은퇴를 앞둔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공사에서는 올해 사업부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젊은 농업농민대상자(청년창업농, 2030세대, 후계농, 귀농인, 만64세이하의 일반농)에게 전폭적인 농지지원을 할 계획이다.

맞춤형 농지지원 한도는 진입(경영규모 2ha이내) → 성장(5ha이내) → 전입(10ha 이내) → 은퇴(농지연금·경영양보보조금 사업 참여)의 4단계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하며 특히, 전입농민 성장단계에 있는 진입·성장 단계를 통해 젊은 농업인을 집중 선발해 농촌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익산=정원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